



보도시점 2023. 6. 27.(화) 16:00
< 6.28.(수) 조간 >

배포 2023. 6. 27.(화)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수지 흑자전환 박차

-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수출역군 10만개사 달성 -
- 안정적인 수출구조 구축을 위해 소비재·스마트팜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 -
-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애로 373건 해소 -

6월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수출위기 극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6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출드라이브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수출기업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은 컨설팅 중심에서 해외 마케팅까지 지원범위 확대, ▲간접수출 기업은 전문 무역상사 매칭서비스 제공, ▲우수한 수출 잠재력을 갖춘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발족(8월)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중견기업 특화 무역금융을 올해 33조원으로 확대 하고, ‘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수출구조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소비재(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와 스마트팜 분야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27년까지 소비재 수출비중을 18%까지(‘22년 11.8%)확대하여 소비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류·콘텐츠·전자상거래·전문무역상사 등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인증·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대응, ▲25년까지 소비재 수출보험 9.5조원 공급,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편드 조성 등 정책자금 공급, ▲싱글·엔젤·실버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연계한 중국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팜 수출확대를 위해 ▲중동 등 유망지역에 스마트팜 거점 무역관 설치,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강화, ▲스마트팜 대상 무역보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에는 균형에 가까운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감소세 둔화가 기대되는 등 수출회복의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안정적인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수출확대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현장 애로해소와 함께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 고】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
 2.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및 계획 주요내용
 3. 스마트팜 수출 확대방안 주요내용
 4.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주요내용
 5.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6. 수출기업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주요내용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정상용(044-203-4020)
			서기관	최혁기(044-203-4021)
			서기관	황유정(044-203-4024)
			사무관	하원석(044-203-4023)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044-203-4030)
			서기관	이동섭(044-203-4031)
	중견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국현(044-203-4360)
			서기관	박희범(044-203-4365)
			사무관	최재홍(044-203-4361)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이용직(044-201-2171)
			서기관	김현우(044-201-217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박승준(044-200-5480)
			사무관	이창엽(044-200-548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현주(044-202-2960)
			사무관	김나진(044-202-29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강도성(044-202-6220)
			사무관	김도형(044-202-6222)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신지원(044-203-2381)
			사무관	이지은(044-203-2378)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송선진(044-203-7046)
			사무관	황예슬(044-203-7062)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천영훈(02-748-5420)
			사무관	이현주(02-748-5419)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안진애(044-201-3516)
			서기관	김영지(044-201-3517)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	책임자 담당자	단 장	장이재(044-201-7560)
			사무관	김원빈(044-201-7562)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봉덕(044-204-7500)
			서기관	백진욱(044-204-7501)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강정실(02-2100-7667)
			서기관	하지영(02-2100-767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남동우(02-2100-2860)
			사무관	안기빈(02-2100-2865)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식품의약품정책전략추진단	책임자 담당자	단 장	오영진(043-719-1351)
			사무관	권혁승(043-719-1352)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희리(044-481-7810)
			주무관	김홍성(042-481-7814)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해영(042-724-7592)
			사무관	김용대(070-4056-6451)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한덕원(042-481-5182)
			사무관	강연무(042-481-3536)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박재진(044-215-4510)
			사무관	김한필(044-215-4512)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책임자	팀 장	김민정(02-6000-5783)
			사무관	사무관(02-6000-5773)

【 최근 수출입 평가 및 전망 】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 1월 약 125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총력 대응한 결과
수출이 회복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발표될 6월 무역수지는
균형에 가깝게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과 8월에는 하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역수지 개선흐름이 주춤할 수 있지만,
이후 본격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함께
수출도 증가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등
우리 수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법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 최근 정상외교 성과 】

저는 지난주 대통령님을 모시고
프랑스와 베트남을 다녀 왔습니다.

프랑스 순방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개최 가능성을 한층 높였으며,

한국과 유럽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이차전지, 미래차, 첨단소재, 해상풍력 등의 분야에서
9억 4천만불(약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의 수출 3위 상대국인 베트남에서는
무역상담회를 통해 최대 1억불의 수출 성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양국은 2030년 교역 목표 1,500억불 달성을 위해
중간재 중심의 협력구조에서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플랜트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으로서 추진해오신
정상외교의 후속 성과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오늘(6.27) 루마니아와 약 2억불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지난주(6.24) 약 50.8억불 규모의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지난달(5.23) 말레이시아와
약 9.2억불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 스마트팜 수출 확대 방안 】

최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동순방을 계기로
5,600만불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였고
6월에도 사우디와 1.2억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목할만한 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립하는 「스마트팜 수출확대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에 스마트팜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120개)를 통한 기자재 물류 지원과 함께
사우디 서틀경제협력단 파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 수출의 외연을 더욱 두텁게 하고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약 9만 5천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출기업의 수를 10만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특히 중견기업이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핵심 역군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수한 기술력 등 수출 잠재력을 갖춘
내수 중견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신규 수출기업 200개사 확충을 목표로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발족('23.8월)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출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특화 무역금융을 올해 33조원('22년 30조)으로 확대하고,
'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진출 추진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500억원 규모의 산업 디지털 펀드를 조성하여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

소비재 또한 안정적인 수출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약 74%를 중간재가 차지하는 반면
소비재 수출은 약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 소비재는 커다란 수출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비재 수출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한류 확산, 온라인 소비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한류스타, 인플루언서, 드라마 간접광고(PPL) 등을 활용해
한류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류 마케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온라인 무역 플랫폼을 통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플랫폼 입점부터 마케팅·물류·결제 까지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온라인 무역역량을 지원하는 디지털종합지원센터를
'27년까지 30개소(現 3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유통망과 수출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무역상사와 국내 제조기업의 매칭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해외인증, 기술규제, 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보다 강화하여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 당부말씀 】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 하반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출 조기 반등과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전부처가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각 부처별 수출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수출지원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해
수출 플러스 전환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행보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간 협업과 유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및 계획」 주요내용

1. 지원실적

- **(정상외교)** 베트남 국민방문(6.22~24) 계기, ①무역(30년 1,500억불), ②제조·첨단 기술, ③공급망, ④미래(청년·스타트업·인프라) 등 양국간 경제협력 고도화
 - BIE 총회 참석(6.20) 계기, 6개 유럽기업*의 9.4억불 투자유치 성과 도출로 유럽과 첨단산업 공급망 확충 및 협력 강화기반 마련
 - G2G 협력 강화, 금융협상 지원 등을 통해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6.24, 50.8억불), 스마트팜 수출계약(6.13, 1.2억불) 체결
- **(수출경쟁력 강화)** 디스플레이·이차전지·디자인 등 첨단·유망산업 육성,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등 마련
 - 글로벌 초격차, 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 '23년 금융공급 목표 91조원 중 5월말 46.3조원(집행률 50.5%) 공급
- **(수출·수주 성과 도출)** 내수기업 선정('23.3월 5,500개사) 후 수출전문위원과 1:1 매칭을 통해 맞춤형 멘토링 지원*, 1,255개사 4천만불 수출 성사
 - 「동남아 서비스 해외진출 파트너링」(5.30~31, 방콕)을 개최해 MOU 7건(약 70만불) 체결* 및 570만불 수출계약 추진
- **(수출 인프라)** 혁신제품·서비스가 신속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EU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안전관리 강화 조치 해제* (6.27) → '23년 1,800만불(23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 기대
- **(수출현장 애로해소)** LNG 연료공급 전용 선박 명명식(5.10, 대통령), 반도체 장비 기업(5.15, 산업부장관), LG엔솔 오창공장(5.25, 산업부장관) 등 방문
 - 농산업 수출확대 간담회(6.15, 산업부-농식품부 합동), 제조업종별 수출 투자 점검회의(5.2 반도체, 5.16 섬유·패션, 5.30 기계), 디지털무역 간담회(6.14, 통상교섭본부장), 의약품·의료기기(5.11)/화장품 수출간담회(5.31, 복지부)

2. 지원계획

- **(수출경쟁력 강화)** 민간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 전략」 발표(7월) 및 수출·투자 관련 주요과제 우선 정책화 추진, 업종별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6.28, 농식품부), 에듀테크 진흥방안(7월, 교육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7월, 농식품부), 2023년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23.7월, 복지부) 등 수립
- **(수출·수주 확대 지원)** 범부처 합동 한류 종합박람회(6.29~30, 프랑크푸르트, 11월 방콕), 파리 K-Food 페어(6.30~7.1, 루브르 박물관) 개최,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9.21~23), K-FISH 팝업스토어(베·태 6.18~7.11) 운영 등 수출활력 제고
 - 아세안·각종 경제협력 채널*, 중동·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운영 및 서틀 경제협력단 파견** 등 추진
 - * 韓 - 인니 경제협력위(7월), 韓 - 태국 무역공동위(10월), 韓 - 베 경제·FTA 공동위(12월)
 - ** 제3차(농식품부, 사우디, 9월 잠정), 제4차(4분기 추진 계획)
- **(현장행보 및 애로해소)**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22.9월~ 15회)을 개편하여 30개 수출유망품목(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확정)* 중심으로 운영(7월)
 - * 품목 중점지원사업 홍보, 글로벌시장동향 공유, 애로청취 및 현장해결, 전문상담 등
 - 전국 수출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수출 활성화 TF*'를 운영(7월)하고, 장·차관 주재 권역별 릴레이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중기부)

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방안

- **(추진배경)** 수출기업 수는 10년째 10만개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체 중이며 코로나19 기간 중 수출중단기업 증가** 등 증가세 둔화
 - * 중소·중견 수출기업수(만개): ('14) 9.0 → ('16) 9.3 → ('18) 9.6 → ('20) 9.7 → ('22) 9.4
 - ** 수출진입기업 - 중단기업(개): ('19) 1,180 → ('20) △428 → ('21) △2,500
- **(세부 추진과제)** 수출기업 수 확대를 위해 △수출 이력 유형별 지원 강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개선 추진

① 수출이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

- **(수출초보기업)** (현행)수출준비 지원(교육* 등) → (개선)교육+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 주요 산업별 전시회 쇼케이스 참여를 통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바이어 상담·B2C 현장계약·샘플 전시 등을 지원,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
- **(간접수출 내수기업)** (현행)지원대상 제외 → (개선)전문무역상사* 연계 강화
 - 간접수출 내수기업 중 직수출 희망기업을 DB화 후 전문무역상사에 간접수출기업 수요를 제공하여 기업-전문무역상사 1:1 매칭* 지원
 - * 매칭 후 전문무역상사의 해외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 등 지원

② 수출이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

- **(지역 디지털 무역 지원 강화)** 지역별 디지털무역종합센터*를 활용해 수출콘텐츠 제작, 수출마케팅, 무역상담 등 디지털 무역 지원
 - *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별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지원 인프라
-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해외 온라인플랫폼* 진출 희망기업 대상, 플랫폼 진출 단계부터 본격화·전문화 단계까지 소과정 지원
 - * B2C 플랫폼 : 이베이, 쇼피 등 / B2B 플랫폼 : 3A(알리바바, 알레그로, 아마존) 등
 - * 초기 : 수출 전과정 대행 → 본격화 : 직접 입점 → 전문화 :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 지원

③ 1:1 맞춤형 멘토링 강화 및 수출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 **(멘토링 강화)** 수출전문위원(170명) 전문분야를 산업별·기능별로 분류하여, 분야별 기업 수요 발생 시 해당 전문위원 매칭*, 멘토링 제고
 - * (현행) 무작위 매칭 → (개선) 전문위원 산업별·기능별 분류 후 맞춤 매칭
- **(협업 강화)** 유관기관 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 희망기업은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참여 우대, 기관간 수출기업정보 공유로 협업 강화
 - 기업 실수요*를 반영, 유관기관 별 기존 제공 서비스 외 기업 희망 지원 서비스 추가 및 관련 협업기관 추가

참고3

「스마트팜 수출 확대방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 ◆ 우리 관행농업은 좁은 경지면적, 인구 고령화로 국제경쟁력이 낮으나, 세계 수준의 IC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농업 하에서는 경쟁 가능
 - * 스마트팜 도입 효과(22,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 생산량 32% ↑, 노동시간 8% ↓, 소득 46% ↑
- ◆ 스마트팜 수출 본격 추진으로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 선점 필요

1. 중동 등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강화

- (거점국가 발굴) 중동 등 주요 국가와 협력체계 마련
 - UAE·카타르·사우디 등 GCC 6개국과 MOU 체결·개정 등을 통해 G2G 협력체계 구축
- (정상경제외교 후속) UAE·사우디 등 정상경제외교 후속조치 이행
 - 정상경제외교 계기 체결 MOU가 연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 해소 지속 추진
 - * 사우디(코오롱글로벌&올레팜), UAE(포미트, 우듬지팜, 올레팜, 미드바르)
- (서틀경제협력단 파견) 사우디에 서틀경제협력단 파견하여 수주 지원
 - 스마트팜 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비즈니스상담회, 스마트팜농산물 시식회 등 추진(9월^{잠정})

2. 해외진출 마케팅 및 금융·투자 등 지원

- (마케팅 지원) 바이어 연계 위한 상담회 개최, 박람회 참가 등 지원
 - 스마트팜 수출기업-현지 바이어 연계 온·오프라인 상담회 등 지원, 스마트팜 주요 국내외 박람회·전시회에 업계의 참가 지원*
 - * 도쿄 IT Expo(6.29~30), GVM(Global Mobile Vision) 2023(10.12~22), 한-중 스마트팜 협력 플래자(4분기) 등
- KOTRA-농어촌공사 협업(6.15., MOU) 기반 스마트팜 특화 지사화 사업 추진 및 스마트팜·농기자재 업체 대상 사업 우대*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 **(금융·투자 지원)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국부펀드 유치 추진**

-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스마트팜·농기계를 추가하여 수출신용보험 한도 확대(최대 2배), 보험료 할인(20%) 등 혜택 제공('23년 하반기)
- 수출업계 운영자금 마련 위한 수출자금 지원(5월~, 1,000억원), 민간 여신 상품(7월~, '27까지 4.3조원) 및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자금(22조원) 활용 등 지원

□ **(프로젝트 발굴) 타산업 협력 기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발굴**

- 해외건설 등 타분야와의 협력체계 기반 B2B 대형프로젝트 발굴
* 해외건설협회-스마트팜산업협회(MOU, 3.22.) 실무협의체 기구성(4.21.)
- 스마트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현지정보 제공, 현지 수주지원 활동 등 지원 서비스 제공
* 코트라 ICT 컨소시엄 지원사업 참가기업으로 스마트팜 분야 기업도 선정

3. 현지 지원체계 강화

□ **(현지 지원거점 구축)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거점무역관 지정 추진**

- * ('23.9월~) 사우디 등 중점지원 무역관 지정 → ('24~) 거점무역관으로 지정
- 스마트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현지 파트너 정보 파악, 현지 스마트팜 정부 지원정책 조사·제공 등 상시지원체계 구축
- 현지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킹 지원, 주요 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

□ **(시범온실 조성) 호주 시범온실 준공 및 사우디 시범온실 신규 구축**

- 호주 시범온실 준공(12월) 등을 기반으로 오세아니아지역 신시장 개척
- 사우디 정부 협력 기반 사우디 시범온실 신규 구축 추진

□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 기자재 물류센터 활용 지원**

- * (~9월) 기업대상 수요 조사 → (10월) 산업부 협의 통해 대상국가 확정 → ('24년~) 서비스 제공
- 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기업이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총 120개)에 수출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주계약 신속 이행지원
- *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고 7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 지원

참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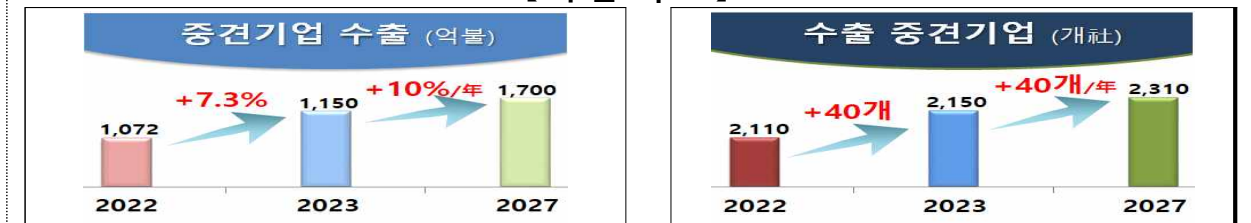
「중견기업 수출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주요내용

1. 중견 수출현황 및 경쟁력 진단

- '22년 중견기업 수출은 1,072억불로 '20~'22년간 연평균 14.5% 성장
 - * 中堅 수출액(억불, 관세청) : ('20) 817.3 → ('21) 996.3 → ('22) 1,071.6
 - 수출 중견기업수(개, 관세청) : ('20) 2,069 → ('21) 2,095 → ('22) 2,110
- '23년 1분기 수출은 25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 감소(△15.2%)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수출 안전판 역할 수행
- 大·中企 대비 수출기업 비중이 높고*, 글로벌 공급망 주축 역할 수행
 - * 수출 기업수(개) 및 비중(%) : (중소) 91,865(23.2), (중견) 2,110(38.5), (대) 932(24.7)
- 내수 중견기업 중에서도 향후 해외진출 계획이 있거나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있어 수출 잠재력 큼
 - * 내수기업(제조업) 中 향후 해외진출 계획중인 기업 비중 : (중견) 8.3% (중소) 4.8%
 - * 내수 중견기업(제조업) 기술수준 : (세계 최고) 4.7% (국내 최고+세계수준 경쟁력) 31.4%

2. 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방안

【 추진 목표 】



1.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 프로젝트 추진

- 산업부, 유관 전문기관 합동 「中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신설 ⇨ 내수 中堅의 수출기업 전환 프로젝트 총괄 지원('27년까지 수출中堅 200개 확충)
 - * 구성(안) : 산업부 및 유관 전문기관(중견련, KOTRA, KIAT·산기평, 무보·수은 등)으로 구성
- ① **[기업발굴]** ①수출 의지, ②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 보유 등을 고려하여 수출 잠재력이 있는 내수 중견기업* 대상 프로젝트 참여 기업 발굴
 - * 내수 중견기업 3,370개社 中 약 330개社 추정(제조 : 약 245개, 비제조 약 85개)
- ② **[기업별 PM]** 프로젝트 참여 기업별로 수출·R&D 등 유관기관 담당자를 전담 PM*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뒷받침
 - * 전담 PM은 지원수요 파악, 지원프로그램 매칭 등 종합 지원
- ③ **[패키지 지원]** PM이 발굴한 지원 수요에 따라 유관 전문기관들이 전략수립·R&D·금융·마케팅 등 수출 소주기 통합 지원

2. [수출기업] 수출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① [수출초기 기업]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초체력 강화

- (기술력 강화) 수출 초기기업(월클 후보기업) 대상 R&D(4년, 40억원) 및 융자 지원*
* 월클 후보기업 등 전용 6천억원 규모 융자 프로그램('23년 신설, 산은) 마련
- (수출인력 확보) 中堅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지원 및 근로자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일자리박람회 수출 초기기업 참여 활성화('22년 28→'23년 40개사) 및 개최 확대(年 1회→2회) 추진
** 중견기업 근로자 대상 수출 실무교육('23년 220명 목표) 및 사내 수출전문가 양성

② [수출도약 기업] 해외시장 발굴→진입→확대 등 수출 단계별 애로해소 지원

- (시장발굴) '프리미엄 지사화' 프로그램(KOTRA, '23~), 中堅 수출 바우처(마케팅비용 지원) 지원횟수 확대 등 수출 지원 서비스 강화
- (시장진입) 해외인증 취득지원, 지적권 보호 등 新시장 진입부담 완화
- (시장확대) 中堅 특화 보증 보험 확대('23년 33조원), 맞춤형 융자 프로그램*, 1조원 규모 펀드(~'27년) 조성 등 해외진출 추진기업 중점 지원
* Rising Leaders 300(우리은행, '23~'27년 4조원), 글로벌 챌린저스 200(산업은행, '23년 2.5조원)

③ [수출전문 기업] 수출리스크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대외 브랜드 역량 강화

- (리스크 대응) 「해외 수출카라반」 연계, 「수출·투자 애로 전담반」 가동 등 중견-정부 간 수출애로 핫라인 구축
- (브랜드 역량강화) 「세계일류상품쇼」 개최('23.11월) 등 수출 전문기업 대상 신규 해외바이어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등 강화

3. [수출인프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재편 대응역량 강화

- [시장별 특화전략] 中堅 3大 주력시장(中, ASEAN, 美) 등 시장별 中堅 수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확대 추진
-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급망 재편 리스크를 중견기업 수출영토 확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협력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제협력) 독일, 일본 등 소부장 중견기업 강국과의 협력 강화
(생태계 강화) 밸류체인 연계형 중견-중소 공동 R&D 지원('23~'32, 5,711억원)
- [산업대전환 대응] ESG 리스크 진단·컨설팅 지원('23년 500개社) 및 산업 디지털전환 펀드(500억원, '23.하) 결성 등으로 선제적 대응 지원

참고5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수출은 중간재(74.1%) 편중으로 글로벌 경기에 취약하여, 소비재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안정성 제고 필요 (목표: '22, 11.4% → '27, 18%)
- 신흥국 중산층 확산로 소비재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한류·온라인 소비 新소비트렌드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필요
- * 중국, 동남아 등 신흥 소비시장을 중점 공략하고, 한류와의 연계가 용이한 5대 유망 소비품목(식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생활용품)을 집중 지원

2. 추진 방안

- (新소비트렌드 활용) 한류마케팅(한류IP·공연 연계, PPL 매칭, 체험형 홍보관 확대), 전자상거래 활용(인플루언서 활용, 해외입점 지원), 서비스(콘텐츠, 구독서비스, 디자인)와 연계한 수출 확대
- (수출 저변확대) 전문무역상사 해외 동반진출 지원, 소비재 수출 바우처 확대, 내수기업 수출지원, 물류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 (수출 지원기반 확충) 정책금융 확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강화**
 - * 수출보험 9.5조원 확대, 바이오펀드 1조원 조성, 고부가 식품 운영자금 4,584억원 지원 등
 - ** K-스마트팜 로드쇼(CIS, 10월)뷰티 전시회(홍콩, 11월), 해외 전시회(상하이 CHIC 패션전시회, 뉴욕 코트리 패션쇼 등)에 K패션관 공동 참가, 자카르타 소비대전(9월) 등
- (비관세 장벽 대응) 해외상호인정 품목 확대, 해외 인허가 등 규제(화장품, 의약품) 대응,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상표무단 선점, 위조상품) 대응, 통관 분야(AEO MRA 체결 추진) 애로 해소
- (對中 소비재 수출 확대) 新소비주체(싱글·실버·엔젤·MZ세대) 대상 마케팅 지원, 한류·온라인 소비 시장 중점 지원
- 중국의 화장품, 식품, 게임 등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구축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참고6

「수출기업 애로해소 실적 및 계획」 주요내용

1. 수출애로 해소 추진실적

◆ 제1차 수출전략회의('22.11) 후속조치로 수출 기업 애로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활동 개시('23.2)

1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540건 애로 발굴

○ 물류, 통관, 금융, 마케팅, 수출제도 등의 애로가 약 70% 차지

합 계(건)	물류·통관	금융	마케팅	수출제도	인증	기 타
540 (100%)	115 (21.3)	107 (19.8%)	90 (16.7%)	59 (10.9%)	33 (6.1%)	136 (25.2%)

* (온라인) 홈페이지(www.export119.co.kr), 전화, 이메일,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계, 홈페이지 등 (오프라인)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활용(30여개 기관, 월1회), 국가·지방 산단 현장 방문(원스톱 수출 119, 월2회), 수출기업 간담회(수시)

2 발굴된 애로 540건 중 373건 해소(약 70%)

○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및 신속한 피드백 제공

총 계(건)	해소*	미착관리**	제도개선 (141건)		
			수용	부분수용	추가검토 중
540	373	26	46	33	62

* 업체에서 요청한 애로사항에 대한 즉시해소 및 지원 종결건

**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해소 진행 중

3 제도개선 주요 성과사례 (5~6월)

① (보세공장 특허기간) 임차시설 보세공장 특허기간 확대

-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보세공장 운영시 보세공장 특허기간이 시설 임차기간이 아닌 최대 10년 특허기간 부여 ('23.下/관세청)

② (보세공장 운영)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공장간 반출입 절차 간소화

-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 자유무역지역내 창고' 간 반출입 신고 면제 추진 ('23.下/관세청)

③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재반입 절차 간소화

- 최초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시 사용소비신고가 완료된 외국물품의 경우, 다른 보세구역 반출 후 재반입시 추가 사용소비신고 면제 추진 ('23.下/관세청)

④ (환경규제) 수입·제조시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 기준 완화

- 화학물질 수입·제조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年 0.1톤 이상 → 1톤 이상 완화 추진 ('23.下/환경부)

2. 주요 활동

- ① **[원스톱 수출 119]** 민관 합동팀이 국가·지방 산단 생산현장으로 방문, 수출애로 해소 추진(월 2회) → 반월시화산단에서 1차 '수출119' 행사 개시(6.8)
* 실무전문인력 중심 민관 합동팀을 구성하여 ① 수출기업 간담회, ② 수출지원 정책 설명회, ③ 1:1 애로 상담회 추진(반월·시화 산단(6.8), 충주 산단(6.22))
- ②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 개시]** 자체 홈페이지(www.export119.go.kr)를 통해 애로 접수부터 답변까지 제공하는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 개시(6.14)
- ③ **[수출기업 간담회]** 경자단,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 발굴 및 해소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출애로 간담회 : 부산·진해(6.8), 울산(6.15), 인천(6.22) / 무역협회 업종별 수출애로 간담회 : 인공지능 및 IT(6.13), 자동차(6.22)
- ④ **[수출·수주지원 활동 전개]** 코엑스 전시회와 연계한 1:1 수출애로 상담회*, 해외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해소 및 해외홍보 지원
* 메타버스 엑스포(6.14-16) 개최 시 금융·해외마케팅 분야 수출애로 상담부스 운영
** (1차) 국내 공항기술·제품 소개(4.28) / (2차) 국내 전기이륜차 제품 소개(6.13)

3. 향후 계획

- ☐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 강화
 - ①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계, 홍보동영상 배포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독려
 - ② 수출·수주 정보 제공, 주요 제도개선 성과 공유 등 온라인 콘텐츠 확충
- ☐ 「원스톱 수출 119」 등 현장 수출애로 발굴 및 해소 활동 지속
 - ① 국가·지방 산단 현장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매월 개최
 - ②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등을 통한 애로 발굴 및 해소 지속 추진
- ☐ 서비스산업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3/4분기)
 - * 「서비스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6.5)」 : 서비스 분야별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주관기관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간 애로사항 공유·해소 시스템 운영
- ☐ 2/4분기 제도개선과제 이행 점검 (분기별)
 - 부처 수용과제 79건(수용 46건 + 부분수용 33건)에 대해 관계부처 이행 현황 파악 및 조기 이행 독려